

〈일반논문〉

조작간첩사건 이후 ‘간첩’의 삶 - ‘울릉도간첩단사건’ 피해자를 중심으로 -

유 상 수 *

〈목차〉

- I. 들어가며
- II. 사회적 낙인과 체념, 또 다른 형벌
- III. 보호관찰, 감옥의 연장선
- IV. 연좌제, 가족 공통의 고통
- V. 고향의 변화, 푸근함과 냉정함 사이
- VI. 나오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작간첩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간첩’이 된 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본 글이다. 그 중에서도 1970년대 대표적인 조작간첩단사건인 ‘울릉도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살펴본 글이다. ‘울릉도간첩단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에서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한 사건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반대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통혁당 사건을 능가하는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도 없는 울릉도의 월북자가족과 전라북도 출신 인사들을 연결시키며 ‘울릉도간첩단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런 무리한 연결을 합리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화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사형부터 징역형에 이르는 판결을 끌어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법에 의한 형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낙인, 보호관찰, 연좌제 등의 부당한 고통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및 고향에 대한 여러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법 이외의 방식들로 인한 고통 및 그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살펴보았다.

□ 주제어

울릉도조작간첩단사건, '간첩', 사회적 낙인, 보호관찰, 연좌제, 고향

I. 들어가며

해방 이후 형성된 반공이데올로기는 이승만 정권을 지나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렬하게 한국사회를 지배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에 서는 반공이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통일,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사회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북한이데올로기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¹⁾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은 서로 수많은 간첩을 통해 상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간첩을 보내는 것 못지않게 상대방의 간첩을 막아내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공안기구 들은 점차 비대해져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파견하는 간

1) 김혜진, 「박정희정권기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경제적 기능」, 『역사비평』 18, 1992, 153쪽.

첩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비대해진 공안기구들은 그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위협을 계속 양산해야 했다.²⁾ 특히 통치기간이 매우 길었던 박정희 정권에서는 '통치'에 위협이 되는 상황마다 그 돌파구로서 '간첩'을 만들어내곤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첩'은 수사과정 중에 각종 고문과 불합리한 재판 결과로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러나 억울한 옥살이가 끝난 후에도 '간첩'에게 가해진 벌은 끝나지 않았다. 이미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에게 국가는 엄격했고, 사회는 냉정했으며, 고향조차 더 이상 따뜻한 품을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친척들도 또 다시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 서로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으며, 가족들은 오랜 시간 연좌제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했다.

만들어진 '간첩'사건 중 '울릉도간첩단사건'은 1974년 3월 발표된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적발된 간첩단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유신정권이 1974년 1월 긴급조치 발동 이후 신학기를 맞아 유신반대시위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1968년의 통혁당사건과 맞먹는, 아니 오히려 능가하는 간첩단사건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울릉도의 월북자가족과 그 친척, 그리고 전북지역의 인사들이 이 간첩단 사건에 포함되었다. 별 관련이 없어 보였던 울릉도와 전북지역의 사람들은 '재일간첩'으로 발표된 이좌영을 연결고리로 하나의 간첩단으로 완성되었다. 이 사건은 40년이 지나고 재심에서 관련피해자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간첩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대별로 간첩담론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³⁾ 되었다. 그리고 일부 간첩사건들을 통해 정권이 어떻게

2) 김정인 외, 『간첩시대』, 책과함께, 2020, 267~268쪽.

간첩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들⁴⁾이 있었다. 또한 간첩의 시대적 변화에서 조작간첩을 그 일부로 다룬 연구⁵⁾가 있었다. 주로 간첩 자체에 주목한 것이며 그들이 입은 피해, 그들의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으며 특정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한 연구들⁶⁾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간첩’이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낙인, 보호관찰, 연좌제, 고향의 변화 등은 피해자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혔던 요인들이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심을 통해서 조작간첩사건과정에서의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성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첩’이 된 이후의 요인들은 여전히 주목되지도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울릉도조작간첩단사건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간첩’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첫째로는 ‘간첩’이 된 후 사회적으로 찍힌 낙인과 그에 따른 체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에 대한 감정을 다루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출소 후의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어떤 피해를 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로는 연좌제를 통해 공적, 사적 영역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로는 사

3) 김봉국,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 22, 2012; 전갑생, 「한국전쟁기 간첩 담론 연구」, 『역사연구』 22, 2012; 황병주, 「1960~70년대 간첩 담론」, 『사학연구』 138, 2020.

4) 전명혁,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사회적 담론의 변화」, 『역사연구』 22, 2012; 오재연, 「동백림사건의 쟁점과 역사적 위치」, 『역사비평』 119, 2017; 황병주·정무용·이정은·홍정완, 『삼척간첩단조작사건』, 책과함께, 2021.

5) 김정인, 「분단의 비극서사, 간첩‘들’의 탄생」, 『사학연구』 138, 2020.

6) 김은재, 「연좌제 피해자들의 국가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 끝없는 도망자로 살아남기 -」, 『비판사회정책』 51, 2016; 여현철, 「국가폭력에 의한 연좌제 피해 사례 분석 - 전시 남북자 가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21-1, 2018.

회적 낙인, 보호관찰, 연좌제 등을 통해 고향이 어떤 곳으로 변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고향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선행 연구들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증언이 주된 근거로 이용되었다. '울릉도간첩단사건'의 피해자들은 인권의학연구소에 진행된 치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것이 편집되어 간행된 것이 『울릉도 1974』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실제 목소리에 주목하기 위해서 이 단행본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이 단행본은 실제 구술한 내용을 편집한 자료여서 피해자 중 이성희, 이사영, 전국술에 대한 구술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들의 추가적인 구술인터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다.

II. 사회적 낙인과 체념, 또 다른 형벌

반공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한국현대사 속에서 조작간첩사건으로 '간첩'이 된 사람들에게는 재판을 통한 처벌 외에도 다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우선이 사회적인 낙인이었다. 그 처벌은 '간첩'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행해졌다. 이 때문에 처음 간첩 혐의가 씌워져 연행되는 순간부터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다. 그 첫번째 단계가 '간첩'이 된 나를 사회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나의 가족은 이 사회에서 어떤 피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가족의 해체까지 고민하였다.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성희의 경우 무기징역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랑하는 아내

를 떠나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한 없이 옥살이를 해야 하는 몸으로 아내를 붙들어 두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할 짓이 못되었다. 아내가 무슨 죄가 있던가. 아내만이라도 행복해야 한다고 믿었다.”⁷⁾

이런 생각은 또 다른 피해자였던 전국술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술은 이성희보다 낮은 형량인 5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씌워진 ‘간첩’이라는 혐의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부인이 면회왔을 때 “좋은 사람 만나 들어가라고(시집가라고)”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래야 자신의 죄, 즉 짐을 내려놓고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면서도 수감 중 가장 힘든 것으로 처자식이 보고 싶은 것을 꼽기도 하였다.⁸⁾ 감정적으로 가족을 그리워하고, 때로는 의지하면서도, 이성적으로는 가족이 불 피해를 생각해 가족의 해체를 고민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다른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기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이성희의 증언 중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다.

예예, 한번 면회 왔어. 그리고 바로 내가 들어간 고 다음 헨가 죽어버렸어. 참 그놈이 아까워. 그 내가 재판 받을 때 최후의 진술을 하라 그럼디다. 그중에 어째서 북에 갔냐, 그거를 물어. 거시기라고 묻지 변호사가. 그럼 답변을 하는데, 내가 민족을 위해서 통일,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내가 좀 몸을 바치려고 한 일이다, 주로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지막 유언으로 알고 얘기했어.

7)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73쪽.

8) 전국술 구술.(2020.06.20)

근데 큰형제(아들), 둘째아들 세 사람이 들었지. 막둥이는 전주에서 학교 다니니까 고등학교 다니니까 못 듣고. 근데 고 다음날 우리 집사람이 면회 와서 그러더라니까. 큰애는 암말도 았더라는디 둘째 죽은 놈 그러더라. 내가 아빠 입장이 되었어도, 나라도 평양에 갔다 왔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해, 하더라고. 그놈이 나하고 많이 상통을 해. 뜻이 맞아요. 그놈이 죽어버렸어. 참 세상에.⁹⁾

아내의 경우는 남편이 '간첩'이 된 상황이었지만,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더욱 악착같이 버텼고, 아파트까지 장만했다. 하지만 자식의 경우에는 아내와는 달랐다. 장남의 경우는 아버지와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어색한 사이였고, 차남의 경우 나중에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피해자였던 이사영도 자신의 수감생활로 인해 어린 시절 형성할 수 있는 자식들과의 정이 형성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후에도 어색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딸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면담자 : 출소하셨을 때 따님이 이제 성인이 큰 따님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됐잖아요? 20살이 넘었던 거죠?

구술자 : 예.

면담자 : 그러면 어렸을 때 봤던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셨을까요?

구술자 : 인자[인제] 보지는 못했어도 그 안에 살면서 사진으로, 사진으로는 가끔 이렇게 넣어줘서 사진만 보고 변해가는걸 알죠.

면담자 : 편지는 주고 받으셨어요?

구술자 : 예.

9) 이성희 구술.(2020.06.05)

면담자 : 어때요? 아빠를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구술자 : 나는 혹시라도 애들한테 내가 상처를 준 거려나. 그래서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돌아왔는데 딸을 전과 같이 그냥 그렇게 순순하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언젠가 내가 한번 출소하고 나서 한번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혹시 나한테 어떤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다던지 뭐 그런게 있는거 아니냐. '그런거 없다' 그러더라.

면담자 : 그래도 다행이네요. 따님들이 이렇게...

구술자 :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조금 순전, 순탄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혼자 사니까. 지 엄마가 있으면 안 그럴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 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하고 가까워져야 하고 자주 이렇게 찾아온다던지 전화한다던지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조금 소원하거든요.

면담자 : 지금 같이 사는 분하고...?

구술자 : 예. 그래서 내가 때로는 외롭고 속상하고 그래서 혼자 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할까 그런 맘도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니들한테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가.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러는가. 그래서 이렇게 발걸음을 자주 앓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아버지가 어렵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내가 너들한테 내가 나는 자랄 때 아버지랑 분이 너무 엄격하게 해놔 가지고 아버지 정이 없어요. 딱끈딱끈한 정이 없어. 사실. 그래서 막 무서운 존재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난 나중에 내 애들 갖고 살면은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안할 것이다라는 내 마음 속으로 다짐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가 매를 든다던지 그런거 한번도 없었어요. 내가. 근데 왜 무섭다 그러냐. 내가 니들한테 무섭게 한 일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그랬더니 원인을 찾아서 보면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스किन십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 거리감이 생겨서 지금도 그런가 보다. 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쉽게 용화가 안되는 거 같아.¹⁰⁾

전국술의 경우는 처음 아내가 면회왔을 때 가족의 해체를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내비쳤다. 이성희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아내도 전국술이 '간첩'이 되기 전보다 더 악착같이 생활을 했고, 전국술은 그런 가족의 존재 때문에 힘든 수감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

면담자 : 사모님 생각이나 인제 애들 생각도 좀 많이...

구술자 : 많이 나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1년 조금, 조금 더 지났고. 애까지, 애 나
[남아]놓고 갔으니까.

면담자 : 그때 자제 분이 있는데 인제 잡혀오신거죠?

구술자 : 예. 근데 인제 그 같이 형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식사가 부
실하잖아요. 그걸 젤[제일] 못 견뎌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식사보
다는 차차식이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
구요.

면담자 : 사모님은 뭐 일을 하셨대요, 그동안에?

구술자 : 그때 가게를 했어요. 내가 인제 고[그]때 퇴직금이 나온 게 있어 가지고.

면담자 : 무슨 장사 하셨어요?

구술자 : 잡화점 했다 합디다. 중랑교 가면 그 태릉 목동이라고 있어요. 목동.

면담자 : 어디쯤인거죠? 목동?

구술자 : 태릉가다보면 중화동, 목동. 거기 내가 살았어요. 거[기] 중랑시장에.¹¹⁾

10) 이사영 구술.(2020.06.12)

11) 전국술 구술.(2020.06.20)

피해자들이 가족에 대해서 해체와 그리움의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된 것은 힘든 수감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사회에서는 국가에서 ‘간첩’ 판정을 한 이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번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다음의 이 사영과 전국술의 발언에서 자포자기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응. 나도 그랬어요. 나도 형님한테 또 출소해가지고 내가 뭐 일할 것도 없지, 내가 직업을 남의 집 월급쟁이는 할 수도 없는거고. 근데 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사실.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누구 같이 할 수도 없고 나 혼자 해야되는 것들 찾아보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구. 그[래]서 때로는 비디오 가게도 한번 해보고.”¹²⁾

“큰 회사에는 아예 취직을 할 수 없었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취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안관찰 하에서 해외여행은커녕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였다”¹³⁾

피해자들은 출감 이후에 삶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사 취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수감생활 중 다른 사상범을 통해 교도소 밖 현실을 충분히 접하기도 했거니와, 출감 이후 사회적인 분위기를 새삼 느꼈던 것이다. 전국술의 경우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회사에서 직원 채용 공고가 나올 때 자격요건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12) 이사영 구술.(2020.06.12)

13)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130쪽.

규정은 '간첩'이 된 이들에게는 채울 수 없는 조건이었다. 여권신청을 해도 발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취업을 막지 않더라도 기본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해 아예 원서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선택지는 대체로 자영업을 하거나 그런 취업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이었다. 전국술의 경우에는 출감 직후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배농사를 짓기도 했다.

이러한 체념이라는 감정과 더불어 자신이 선택한 외면과 타인의 외면이라는 감정 또한 이들의 선택지 중 하나였다. 울릉도조작간첩단사건의 피해자였던 김영권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척들의 냉대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출소는 하였지만 별로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느껴지잖아요.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어요”¹⁴⁾ 라며 주변의 외면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전국술의 경우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들도 모두 울릉도를 떠났고 집안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또한 “이제 출감해봤자 어디로 가겠나...”, “이제 어디 가서 발붙이고 살 수 있겠나”, “이제 끝났다” 등의 생각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¹⁵⁾ 이런 생각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이들에게 사람들은 여전히 낯설었다. 20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전국술이 울릉도에 왔음을 안 동창이나 후배들은 모두 그를 피하고 만나지 않았다. 전국술이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집안의 먼 동생뿐이었다.¹⁶⁾

손두익의 경우도 형을 마치고 울릉도로 돌아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14)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167쪽.

15)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129쪽.

16)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134쪽.

외면이었다.¹⁷⁾ 외면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는 소문을 통해 ‘간첩’이 된 사람들을 규정했다. 공공연하게 혐의에 대한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한 소문은 확고한 ‘사실’로 굳어졌으며, 그 ‘사실’은 점차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 ‘사실’은 피해자들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다.¹⁸⁾ 이런 모습은 ‘간첩’ 당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적용되었다. 손두익의 딸인 손명숙의 증언 속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다음은 손명숙의 발언이다.

“어느 날인가 … 학교에 갔는데 분위기가 보통 때와는 달리 이상해요. 선생님도 아이들도 평소와 달라요. 저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친구들과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지요. 저희 집은 빨갱이 집이고, 저는 빨갱이 딸이었다는 것어요.”¹⁹⁾

Ⅲ. 보호관찰, 감옥의 연장선

보호관찰은 출감 후 사건의 피해자들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것이었다. 보호관찰, 즉 민간인 사찰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사찰’과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요시찰’이 그것이다. 이 중 요시찰은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것이 해방 이후에도 존속되었다.²⁰⁾ 이런 사찰 활동은 경찰을 중심으로 한국전

17)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44쪽.

18) 전국술 구술.(2020.06.20)

19)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56쪽.

20) 신성식, 「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

쟁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경찰에서는 중점 감시 대상을 '요시찰인'으로 명명하고 "국체의 침해와 사회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순요소를 내포한 분자"인 특수 요시찰인과 보통 요시찰인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충청남도 금산지역의 경우 1950년대 중반 특수 요시찰인은 4명, 보통 요시찰인은 145명이었다고 한다.²¹⁾ 이렇게 경찰의 사찰 활동은 1950년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명칭을 보호관찰로 변경하고, 정보·보안경찰이 이를 담당하였다. 1979년 기준 전체 경찰관 49,964명 중 정보·보안경찰은 5,800명으로 경찰의 11.6%를 차지하였다.²²⁾

박정희 정권에서는 유신체제 이후 1975년 7월 16일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안전법』을 제정하면서 보안처분을 법제화했다.²³⁾ 이 법에 따르면 보안처분은 1. 보호관찰처분, 2. 주거제한처분, 3. 보안감호처분으로 구분(제3조 보안처분의 종류)되어 있었고, 보안처분의 대상자로서 1.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또는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4.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로 규정하여 '간첩'의 경우 보호관찰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²⁴⁾

사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28-1, 2011, 182쪽.

21) 이윤정, 「금산경찰서 한 경찰관의 『교양수부』와 『교양자료집』(1955~56년)을 통해 본 사찰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93, 2020, 207쪽.

22) 신성식, 「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28-1, 2011, 186쪽.

23) 김대현, 「치안유지를 넘어선 '치료'와 '복지'의 시대: 1970~8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5, 2021, 96쪽.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안전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안전법/\(02769](https://www.law.go.kr/법령/사회안전법/(02769),

보안처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체감은 각자 달랐다. 손두익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주거제한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기 어려웠다”²⁵⁾ 고 증언하였다. 이성희는 “보호관찰 때문에 좀 시달림을 받았어요. 괴로웠지요. … 형사가 보호관찰 한답시고 수시로 집에 찾아왔어요. 오면 밥을 사줘야 해요. … 집으로 오지 않으면 매달 경찰서로 들어오라고 해요. 조서 꾸민다고. 원래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 본인 모르게 감시만 하고 보고서 쓰면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놈이 자기 편해지려고 그러질 않았어요.”²⁶⁾ 라고 자신의 보호관찰 경험에 대해서 표현하였다.

이사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형을 받았던 사람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출소한 다음 날부터 해당 경찰서의 보안과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행적, 즉 누구와 연락하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보고서 제출 외에도 담당 경찰들은 때때로 전화를 걸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2년마다 심사를 통해 보호관찰의 연장여부를 결정하였다. 경찰서와 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의 감찰위원들이 이를 결정했는데 이사영의 경우는 20년이 넘게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사영의 친형이 조작간첩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좌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사영은 자신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 보호관찰기간이 왜 끝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보호관찰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주변의 말을 듣고 수재의연금을 낸다든지, 위문을 하는 등 ‘선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사영의 보호관찰 2008년 형인 이좌영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야 끝날 수 있었다. 언제 끝

19750716)

25)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41쪽.

26)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67~68쪽.

날지 몰랐던 이사영의 보호관찰은 2008년 형인 이좌영이 사망하고 나서야 보호관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기간 경찰, 검찰 등은 필요할 때에 피해자들을 호출하여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조사를 진행했다. 친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미행을 하기도 하고,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 여관에 묵으며 감시를 했다.²⁷⁾ 이런 보호관찰은 형 집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요인 중 하나였다.

IV. 연좌제, 가족 공통의 고통

연좌제는 대표적인 국가폭력의 한 형태였다. 한국 사회에서 연좌제란 마치 과거 봉건왕조 시대에서 반역자를 처벌할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멸했던 것처럼 당사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연루된 본인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해서 죄의행위나 간첩행위에 대한 전력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가했던 관습상의 제도²⁸⁾였다. 특히 분단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한국에서 죄의활동을 했거나 월북한 사람의 가족은 약 100만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연좌제로 고통받았다. 납북자 가족들은 잠재적 '사상불온자'로 여겨져 북한의 간첩활동에 동조할 수 있는 위험집단으로 구분되기도 했다.²⁹⁾ 이들은 독재정권에 의해 '간첩만들기'에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가족은 또다시 연좌제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

27) 이사영 구술.(2020.06.12)

28) 김은재, 「연좌제 피해자들의 국가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끝없는 도망자로 살 아남기-」, 『비판사회정책』 51, 2016, 246쪽.

29) 여현철, 「국가폭력에 의한 연좌제 피해 사례 분석-전시 납북자 가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1-1, 2018, 172쪽.

가 이좌영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전북 출신으로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이좌영을 한번 재일간첩으로 낙인찍은 뒤 다른 조작간첩 사건의 연결고리로 '재활용'하였다.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에 등장했던 그는 1993년 남매 간첩단사건, 1994년의 이화춘 조작 간첩사건에 다시금 등장하였다.³⁰⁾

이런 연좌제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국가의 공식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연좌제 폐지에 따른 신원조사업무요강> 등 1960~1970년대 생산된 경찰문서에서 계속해서 '연좌제 폐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연좌제 폐지는 일반범죄에 대한 것일 뿐이었다. 간첩죄에 관련되었던 사항, 한국전쟁 중 월북한 자 및 조총련 활동자,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죄에 관련되었던 사항, 대상자에게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요청기관의 장이 요구하였거나 요청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신원조회에 포함됨으로써 실질적인 연좌제가 시행되었다.³¹⁾ 1980년 개정된 대한민국 제8차 헌법 제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연좌제는 폐지³²⁾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연좌제가 힘을 잃은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였다.

연좌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 영역과 이웃들에 의한 사적 영역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행한 납북자 가족

30)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17쪽.

31) 경상남도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경무과, 「연좌제폐지에 따른 신원조사업무요강」, 1967, 관리번호 BA0183865.

32) 여현철, 「국가폭력에 의한 연좌제 피해 사례 분석 - 전시 납북자 가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21-1, 2018, 173쪽.

322명의 사례 분석에 의하면 시험, 취업, 승진, 혹은 군복무 불이익이나 해외 이주 및 여행 시 신원조회 상의 불이익은 195명(60.6%), 주변인으로부터 따돌림이나 관련기관으로의 감시는 104명(32.3%), 관련기관의 연행 및 폭행,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등 신체 및 재산권 침해는 23명(7.1%)로 조사되었다.³³⁾ 연좌제에 연루된 이상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은 관념상의 권리였을 뿐이었다.³⁴⁾ 권리는 제한되었지만 의무는 제한되지 않았다. 병역을 비롯한 다양한 의무는 온전히 져야만 했다. 연좌제 연루 가족에게 있어 국가 및 사회의 시선은 원죄의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죄의식으로 끊임없는 공포와 자신의 삶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살아가야 했다.(이문열, 1991년 월간 말 인터뷰 중)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것으로 연좌제의 규정을 받았다.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나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수준까지 전락하였던 것이다. 지역사회는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면 직장에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이웃 사람들은 이들을 수시로 감시함으로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형 집행 후 고향으로 돌아갔던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이웃 사람들로부터 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구속받았다. 피해자들은 연좌제에 대해서 다음과 언급을 하였다.

“... 정말 기가 막힌 것은 ...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 제 옆집에 살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선장 일을 가르쳤지요. 제가 울릉도에서 선장 면허를 가장 먼저 뺏겨드요. 제가 그 사람에 선장 일을 가르치고 제 배에서 선장으로 일을 했

33)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2017, 259쪽.

34) 김은재, 「연좌제 피해자들의 국가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 끝없는 도망자로 살아남기 -」, 『비판사회정책』 51, 2016, 276쪽.

지요. 그런데 사건 후에 위로는 못 해줄망정 ... 이 사람이 어머니를 찾아와서는 '할머니 아들이 빨갱이에요.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 아세요'라고 말했대요. 그 일로 노환에 아들 걱정을 하던 노인이 심한 충격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운명하셨어요”(손두익)³⁵⁾

“...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공부를 잘해 상을 받게 되었는데 막상 상을 받는 날이 되니 상을 주지 않아요. 신원조회에 걸린 것이예요.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상을 주려고 했는데 ... 아버지 때문에 줄 수 없게 되었다'하고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상 같은 것 받을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지요.”

“아버지가 출감하신 지 28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어제 일처럼 아버지 계시던 교도소 주소와 수감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잊히지 않네요. 대전시 중촌동 1번지 ... 수감번호가 3965번이었어요. 이 번호가 이제는 뼈에 새겨져 집 보안키라든가 비밀번호를 쓸 때가 있으면 저절로 이 번호를 누르게 돼요. 3965 하고 말이에요”(손명숙(손두익의 딸))³⁶⁾

“신문에 기사가 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살가운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던 동네 사람들도 변하였다. 동희와 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였다. 때로는 집에 찾아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지, 마루 밑을 들여다보고 뒤지기도 하였다. 어떤 날은 술 먹은 아저씨가 찾아와 '전영관이 나와! 이 간첩 새끼 나오란 말이야!' 하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문을 부수기도 하였다. ... 그날 이후 학교에서도 외톨이가 되었다. 위로하고 도와준 친구들도 있었지만, '간첩의 딸'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다.”(전동희(전영관의 딸))³⁷⁾

35)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44~45쪽.

36)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56~57쪽.

37)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144쪽.

“울릉군 수협에 근무하던 장남은 사건 발생 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우울증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다. 그 후로 이렇다 할 직업도 가지지 못한 채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 차남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한 달간의 교육까지 마쳤으나 임용에서는 제외되었다. 사남 역시 공무원 시험에 붙었으나 채용되지는 못하였다. 전화국에 다니던 장녀도 그만두고 백화점의 점원으로 일해야 했다. 법적으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연좌제에 걸렸던 탓이었다.”(전서봉)³⁸⁾

“처음에는 인자[인제] 내가 다니던 공장에 가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좀 있어요. 뭐 간단한 실밥을 판다던지, 뭐 라벨을 붙인다던지. 그런걸로 인자[인제] 갔다가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히[하]고 그랬는데 그걸로 생활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인자[인제] 어디 뭐 일도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떡하다가 이제 일본 형님하고도 이게 선이 끊어져갔고 연락도 안 되고. 어떡하다 인제 그쪽에 선이 닿아가지고 일본에. 그래갖고 형님이 조금 도와줬어요. 그래도.

… 그럴 거야. 형님은 참 애들이 많고, 일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나오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 … 지금은 다 성인들. 지금 그 조카 하나가 장충고등학교 다닐 때이고 그랬는데. 개들이 조카들이 그냥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애들이 다 흩어지기도 하고 그냥 지들 있기로도 우애도 없고 그래. 난 그것들이 조금 되게 안타까운데. 조카들이 돌아죽기도 하고.”(이사영)

면담자 : 그럼 그 이후에도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이삼희 선생님이랑은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38)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215쪽.

구술자 : 아 그럼, 그럼. 그렇게 다정하게 지냈지요. 근데 그 사건 후에 우리 제수가 절대로 나를 반대를 해. 제수가 삼희 부인이.

.....

구술자 : 아, 사람 취급을 안 해. 우리 집사람도 그냥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차운 사람도.

면담자 : 전주에서는 바로 떠나신 거예요?

구술자 : 예, 바로 떠났죠.(이성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연좌제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연좌제가 끝난 이후에도 해방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는 회색지대로 인식하며 불편해했다.³⁹⁾ 사적 영역에서의 ‘연좌제’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긴 시간의 연좌제로 인해 피해자들은 국민 아닌 국민으로 사회적 기회의 제한을 받았고, 원죄의 불안으로 인해 끝없이 탈주하는 삶으로 나타났으며, 근린체계에서 가해진 사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것은 때로는 공포가 사라진 회색지대에서의 허무주의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⁴⁰⁾

피해자들은 이런 연좌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괴로워하기도 했다.⁴¹⁾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이성희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39) 김은재, 「연좌제 피해자들의 국가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끝없는 도망자로 살아남기-」, 『비판사회정책』 51, 2016, 281쪽.

40) 김은재, 「연좌제 피해자들의 국가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끝없는 도망자로 살아남기-」, 『비판사회정책』 51, 2016, 276쪽.

4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포’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구술자를 섭외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는데까지 재심 청구에서 변호사였던 이명춘 변호사와 함께 했다. 오랜 재심기간동안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도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수십년간 눌러왔던 고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2010년 위원회가 중앙정보부에 의한 간첩 조작 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들은 각자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리고 2015년 재심에서 승소하기까지 이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말하고 또 말해야 했다. 그럼에도 2020년 구술인터뷰를 진행할 때 특히 연좌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다. 전국술의 경우 처음에는 구술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고사하기도 했다. 이성희의 부인은 이성희의 구술인터뷰 수락에 대해서 “어디서 또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V. 고향의 변화, 푸근함과 냉정함 사이

한 사람의 삶에서 고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여러 경험은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간첩'들은 조작간첩사건으로 인하여 고향에 대해서 극명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름다운 풍경을 중심으로 고향을 그려냈다. 또한 즐거운 일들을 중심으로 고향을 기억해냈다. 일반적으로 고향을 떠올릴 때의 이미지인 '푸근함'과 '아련함' 즉 어머니의 품속과 같이 고향을 느끼는 듯했다. 다음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이다.

통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이들의 피해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어려서 본래는 동진강 하류인데, 그게 갈대밭이었던가 봐. 거그를 하여튼 갈대밭이니까 그 갈대 뿌리가 있을 거 아녀. 그걸 이렇게 떼다가 담을 쌓고, 또 그저 갈대밭에다 집을 지어야 하니까 흙이 필요할 거 아녀. 그 흙을 퍼다가 돋았어요. 그래서 방죽을 하나 맨들었어. 그 방죽을 뚫 크고 방죽이 뚫가 알겠쥬. 가져다가 화원도 만들고. 버드나무도 이런 버드나무가 옛날에 한 200년 되었다고 그래요. 대문안집이라고 그렇게 큰집에서 살았어요.

여름에는 일하는 분들이 일꾼이 한 열 명이 돼. 그리고 겨울에는 한 눈 치우고 저거 하니까 그 사람들을 셋만 남고. 여름에는 한 열명 되어. 그러가지고 대문가니까 그 곳간 큰 곳간도 있고 그 서당방도 있고 머슴방도 있고 소도 한 마리 길러야 하고. 대문안집 둘째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남 부렁잡게 살았어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둘째 아들로 살았어. 어째 내 별명이 짜가살이여. 빠가 빠가 빠가사리라고, 내 별명이 그래. 그 조각 괴팍했다. 그래서 빠가살이라, 대문안집 빠가살이.

그 부잣집 아들로 자랐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뭐든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밥을 몇 끼 굶으면 되야. 사쥐. 절대로 사쥐. 내가 그러니까 그때도 시골이니까 일본학교가 있었거든 소학교가. 일본사람들 소학교가 있었고, 조선 사람들 중학교, 보통학교가 있었고. 근데 보통학교 학생 중에 오바를 입은 사람은 나 하나여.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때 입고 다니거든, 근데 한국 사람은 오바 없어. 일본 놈들 오바 입고 있는데 나는 없냐고, 사달라고 하니까 백산에 파는 데가 없어 부안군에서 팔고 없어.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일부러 간 게 아니라, 광주에 우리 아버지가 친척이 결혼식에 갔다가 광주에서 사갔어요. 그 학교에 오바를 조선 사람 조선 학생이 오바 입은 건 나 하나예요. 그렇게 그냥 귀엽게 자라났어.”⁴²⁾ (이성희 - 전북 부안군 백산면)

42) 이성희 구술.(2020.06.05)

아주 벽촌이에요. 아주 산 밑에 이렇게 살았던 벽촌인데 선천계서는 시골에 오래 한 마을에 우리 씨족들이. 한 90% 정도 집중, 집촌해서 사셨거든요.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조금 행동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유순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이사영 - 전라북도 익산군 삼지면)⁴³⁾

지금 울릉도하고 제가 찰[살]았던 울릉도는 판이합니다. 제가 자랐던 울릉도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 속에만 남아있는데. 왜 그[리]냐면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 없어요. 사람들 전부 걸어다니거나 배를 타고 다니니까. 진짜 청정지역이지요. 근데 지금은 개발한다 해가지고 자연환경도 훼손하고 지금은 차도 너무 많아가[서] 소음 공해 심하고 그래. 지금 울릉도는 옛날 울릉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전국술 - 울릉도)

하지만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투옥이 되고 난 후에 고향은 이들에게 더 이상 '푸근함', '아련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 아니었다. 간첩조작사건 이후 고향은 이들에게 냉정했고, 때로는 더 이상 고향에 머물 수 없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랜 수감생활로 인한 변화는 이들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울릉도는 선생이 떠나던 7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항만도 생기고 택시들도 다니고 있었다.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업소와 식당들도 많이 들어서서 장사하고 있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산소에 참배를 하였다. 살던 동네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집들은 많이 헐리고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정점던 흙길은 시멘트 포장도로로 바뀌고 있었다.⁴⁴⁾ (전서봉)

43) 이사영 구술.(2020.06.12)

44)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216쪽.

“살아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다. 출소 이전에 가졌던 마음의 상처, 절망감, 패배감 등은 출소 후 산에 다니면서 대부분 치유하였으나 거듭된 실패는 새로운 상처를 안겨주었다.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자괴감으로 괴롭고 의욕을 잃어가던 어느 날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던 고향에 갈 일이 생겼다. 오랜 수형 생활로 고생하신 둘째 매부(손두익)의 진감 친지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 한때는 원망하기도 했던 고향이었다.”(전국술)⁴⁵⁾

면담자 : 91년에 울릉도를 방문 하시잖아요? 그때 울릉도 방문 하셨을 때.

구술자 : 예.

면담자 :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있었던 거잖아요?

구술자 : 친구 내가 한 친구를 만났죠. 그 친구는 그 전에 서울에서도 한번 만났는데. 그때 딱 가가[가서] 그때도 인자[인제] 출생은 서울에서, 우리 중학교 동기 네 명을 만날 때 그 친구가 서울에서 같이 만났는데. 울릉도 가서 그 친구를 만나니까 ‘아이고 누구 온다’ 그러[라]는데 그리고 보니 이게 또 당황하더라구요. 아 참 나를 피하는구나 싶어 가지고. 그러고는 내가 인자[인제].

면담자 : 아무래도 그 지역사회에서의 눈이 있었던 거군요.

구술자 : 그럼요. 그럼요. 예. 지금도 요[여기] 울릉도 내가 가면 모른 척하고 인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울릉도 간첩단 얘기를 해요.

면담자 : 사람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구술자 : 아이고. 울릉도 간첩단 얘기를 한다니깐[까]요. 내가 예를 들어가[서] 며칠 전 울릉도에 지냈는데. 이젠 인제 손 자형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인제 포항에서 울릉도 모임회 인제 회장하는데. 인제 얘기하다가 내가

45)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130~131쪽.

손 자형을 잘 안다 그라니[그러니까] '손두익씨 간첩 그거 간첩 아인교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만 낭설있죠?

면담자 : 그러니까 손두익 선생님이 간첩이라고...

구술자 : 손두익이가 간첩으로 보면서 뭐 이북으로 막 들락날락 하면서 오징어를 많이 잡아다느니, 우리 삼촌 이름이 전석봉이거든요. 전석봉이랍니다. 그 빵이라는 거는 낮차[취] 부르는 거잖아요. '전석봉이는 의사라 하면서도 방어 잡아서 나가면서 거[기]서 뭐 연락을 하고 이렇다느니 뭐. 그[기]에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안죽도[아직도] 낭설이 아주 그대로 이렇게 퍼지고 있더라구요.

면담자 : 근데 이제 그때 가셨을 때 그 친구분 아까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구술자 : 예.

면담자 : 고향이지만 좀 나한테는 모질구나라는 생각...

구술자 : 모질고 또 너무 변해있고.

면담자 : 풍경도 인제 많이 변해있고.

구술자 : 변해있고 차도 많고, 사람도 옥신거리고, 낯선 사람이 더 많고.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고향에 다시 돌아가기를 기원했으며, 다시 고향이 자신을 품어줄 날을 기대했다. 전서봉의 경우 교도소에서 7년 동안 모은 50만원과 자녀들이 보태준 돈으로 작은 낫빚배를 한 척 구입하였다. 빈집을 하나 얻어 생활을 시작하였다. 태어나 살아온 땅이 자신을 다시 받아들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⁴⁷⁾ 전국술의 경우에도 “... 그런 원망으로 애써 잊고 지내던 울릉도에 갈 생각을 하니 애꿎은 울릉도를 원망하던 날을 잊은 사람처럼 불현 듯 고향이 그리워졌다. 그리워 가고 싶던

46) 전국술 구술.(2020.06.20)

47)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216쪽.

곳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온 날들이 바람에 마른 재 날리듯 사라지고 늘 그리워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보고 싶었다.”⁴⁸⁾ 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면담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담자 : 어릴 적 기억하시는 고향이 이제 선생님 기억 속에만 있고 더 이상 인제 없어요?

구술자 : 없어요.

면담자 : 많이 서운하세요?

구술자 : 서운하지요. 지금 가면은 나는 눈 감으면 옛날 그 바위나무, 동백나무 그런 것 생각하는데 지금 흔적도 없으니까.

면담자 : 그럼 가끔 울릉도 가시면은 주로 뭘 보고 오시는 거예요?

구술자 : 고향산천.

면담자 : 예.

구술자 : 고향산천, 바닷가. 내가 다녔던, 보면 나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니까[라 서] 여기서 누굴 만났다 어디서 뭘 했다 그런 어릴 때 기억,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걸어다녔는데 요즘 버스가 한바퀴[바퀴] 돌잖 아요. 그럼 버스 한번 타고 빙 돌면 마음이 편안해요. 바닷길 옛날 보던 바위가 그냥 있으면 반갑고, 아 여[이] 늬은 아직 살아있구나. 개발이 돼 가지고 없어지고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친구처럼 고[그]렇게 느끼는. 고[그]게 인제 나는 좋아. 그런 게.⁴⁹⁾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향은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푸근함’을 주

48)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131~132쪽.

49) 전국술 구술.(2020.06.20)

는 것이고 말년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다. 하지만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생채기를 내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향에서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피해자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고향을 피했던 피해자들도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고, 그리운 마음에 다시 돌아가 살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을 하곤 했다. 그 과정에서 고향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의 생채기를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였다.

VI. 나오며

이 글에서는 울릉도조작간첩단사건의 피해자들이 당한 여러 피해들 중 사법적인 형벌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피해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불법구금, 고문, 사법적인 형벌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나 재심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 다루어졌고, 다른 국가폭력에 대한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연구를 통해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간첩'이 된 후의 다양한 피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목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보상의 영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울릉도간첩단사건'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사회적인 낙인, 보호관찰로 인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피해, 연좌제로 인한 공적 영역 및 사적 영역에서 가해진 가족들의 피해 등 다양한 피해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족들에게 느낀 감정을 같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가족에게 느낀 감정과 더불어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고향에

대한 감정이었다. 일반적으로 고향은 푸근함과 아련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간첩'이 되어버린 피해자들에게 고향은 냉정한 곳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머물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향을 원망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곳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에 난 생채기를 어루만져주는 곳으로 작용되기도 하였다. 이런 복잡한 고향의 모습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2021.11.07. 투고 / 2021.12.03. 심사완료 / 2021.12.14. 게재확정)

[Abstract]

Life of so-called 'Spy' after Fabricated Spy Case
– focused on the Ulleungdo Case –

Ryu, Sang-soo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victims of fabricated spy case have lived after the incidents, focused on the Ulleungdo Case in 1970s. In 1974, South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relased this case as Ulleungdo base for North Korean Spy Group. Park Chung-hee regime fabricated a North Korean spy group case that is much bigger than TongHyeockDang case, in order to put a restraint on anti-Yushin movement. In that process, they created a false link between Ulleungdo Spy Group and social elites from Jeollabuk-do area, which had not a single connection. In an attempt to rationalize this unreasonable connection, they illegally detained the victims and tortured them which led to false confessions, which got penal servitudes and death penalties. The victims unjustly suffered from not only the punishments under the law, but also the social stigma, probation and guilt by association, and many thoughts on families and hometowns were racing through their heads along the way.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y suffered in many ways besides law and their thoughts during the course based on their oral statements.

□ Keyword

Fabricated Ulleungdo Spy Case, North Korean Spy, Social Stigma, Probation, Guilt by Association, Hometown

[참고문헌]

- 이성희 구술(2020.06.05.), 이사영 구술(2020.06.12.), 전국술 구술(2020.06.20.)
- 경상남도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경무과, 「연좌제폐지에 따른 신원조사업무요강」, 1967, 관리번호 BA0183865.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2017.
- 김정인 외, 『간첩시대』, 책과함께, 2020.
- 최창남, 『울릉도 1974』, 뿌리와 이파리, 2012.
- 김대현, 「치안유지를 넘어선 '치료'와 '복지'의 시대 : 1970~80년대 보안처 분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5, 2021.
- 김봉국,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 22, 2012.
- 김은재, 「연좌제 피해자들의 국가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 끝없는 도망자로 살아남기 -」, 『비판사회정책』 51, 2016.
- 김정인, 「분단의 비극서사, 간첩'들'의 탄생」, 『사학연구』 138, 2020.
- 김해진, 「박정희정권기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경제적 기능」, 『역사비평』 18, 1992.
- 신성식, 「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 :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28-1, 2011.
- 여현철, 「국가폭력에 의한 연좌제 피해 사례 분석 - 전시 납북자 가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21-1, 2018.
- 오제연, 「동백림사건의 쟁점과 역사적 위치」, 『역사비평』 119, 2017.
- 이윤정, 「금산경찰서 한 경찰관의 『교양수부』와 『교양자료집』(1955~56년)을 통해 본 사찰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93, 2020.
- 전갑생, 「한국전쟁기 간첩 담론 연구」, 『역사연구』 22, 2012.
- 전명혁,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사회적 담론의 변화」, 『역사연구』

22호, 2012.

홍종욱, 「이좌영과 재일 한국인 정치범 구원 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21호, 2021.

황병주, 「1960~70년대 간첩 담론」, 『사학연구』 138, 2020.